인문연구 제8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8. Vol. 83, No. 1, pp.143~178
http://dx.doi.org/10.21211/JHUM.83.5

1883~84년 『한성순보』에 새겨진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정보 전쟁*

김미지**

〈차 례〉

1. 들어가며
2. 불화와 반란의 시대 : 식민지 동향과 열강의 외교전
3. 풍문과 전언의 시대 : 청불전쟁의 전황 보도와 정보전
4. 결론

【국문초록】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기 전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정부 주도로 발간된 『漢城旬報』는 전체 기사의 70퍼센트 이상이 각국근사(各國近事)로 이루어진 외신 중심의 매체였다. 특히 그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의 기사들이 중국의 상해 홍콩의 신문에 의존하여 제공된 것인데, 이 연구는 그러한 기사들이 당대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과 제국-식민지 관계를 꽤 폭넓고 충실히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담아내고 또 전달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漢城旬報』가 발간되던 1883~4년은 아시아 역사에서 인도차이나 전쟁, 청불전쟁이 일어난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을 침략한 프랑스와 베트남을 오랜 속방으로 하고 있던 중국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의 식민지 동향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움직임이 『漢城旬報』 전편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주로 중국의 영국 조계지들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된 세계 각지의 정보들에 의존하다보니 『漢城旬報』의 기사들은 다양한 논조나 입장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漢城旬報』는 스스로 특정한 매체적 입장을 가지기보다는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집적을 통해 '앎'의 형성과 이의 유통에 보다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청불전쟁의 전황 보도가 증가하면서 전쟁 시기에 생산되는 신문기사들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기사들이 『漢城旬報』에도 다량 등장하게 된다. 즉 풍문과 전언, 청취담과 목격담 등이 어지러이 결합하면서 '사실' 보도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정보전이 『漢城旬報』에도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漢城旬報』는 여러 날에 걸쳐 산출된 일간신문의 기사들을 열흘에 한 번씩 모아 발행함으로써 일간신문은 제공할 수 없는 광범위한 정보의 집적과 재배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漢城旬報』가 당대에 어떤 근대적인 매체들과도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외신기사, 인도차이나 전쟁, 청불전쟁,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상해 개항장 신문, 『호보』, 『신보』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매체로 일컬어지는 『漢城旬報』가 발

간된 것은 19세기 후반 1883~4년의 일이다. 그런데 이미 밝혀져 있다시피 『한성순보』의 기사들은 지면의 70퍼센트 가까이가 외신 그것도 주로 중국 상해發 기사들로 채워져 있어, 자주적인 논조와 편집 방향을 가진 매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외신들을 수집하고 있는 정보 집적 매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1] 『한성순보』의 체제는 크게 內國紀事(후에 國內官報)-國內私報-各國近信 세 부분으로 나뉜다. 관보(朝報)를 수록하는 것은 중국의 상해, 홍콩의 신문들을 비롯해 당대 세계 신문들(상업지 포함)의 보편적인 형태이기도 했다. 국내사보는 『한성순보』 편집진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기사로서 5호부터 처음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조선 내 외국인 및 외교관의 동정, 조선인과 외국인들 사이의 사건사고 등을 기록하여 그 가치가 크지만 분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한편 논설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호별로 몇 건씩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외국 신문(주로 상해의 신문들)의 논설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1880년대 초 조선에서 이러한 외신 전문 매체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걸까. 수신사 박영효가 1882년 귀국하여 적극적으로 고종에게 진언하여 신문 발간을 추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제자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조선의 신문 발간을 위해 고빙되어 『한성순보』에 일부 관여하고 후에 『한성주보』를 발간하는 데 적극 활약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지로 박영효가 일본에서 본대로 또 구상한대로 신문

1) 『한성순보』 지면의 7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각국근사'가 대부분 상해, 홍콩 등 중국 개항장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들의 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미지,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들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110, 2017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주로 중국 신문들과 발간 서지 및 기사 생산 추이를 비교하는 데에 치중하여 『한성순보』의 지면구성을 통해 볼 수 있는 함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그 후속 작업으로 『한성순보』 기사들의 배치, 내용 구성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매체적 의의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문 발간 주체 역시 김만식, 김인식 등 한학자들로 교체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설치된 교육 기관 겸 서적 간행 기관인 동문학 아래에 신문보관 박문국이 설치된 것은 1883년 8월 17일이었고 창간호가 발행된 것은 동년 10월 30일이었다. 김인식을 주사로 하여, 9월 7일에 實務司事로서 장박, 오용목, 김기준 등이 편집진으로 임명되었으니,[2]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신문 발간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대 동아시아에서 유통되던 신문들의 수집, 열람, 취사선택, 편집 및 인쇄라는 일련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인데, 이를 열흘 간격으로 지속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이 시기가 1882년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잇따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라는 점이다.

사실 조선에 유럽을 포함한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였고, 수백 년 동안 청으로부터 서학서나 지리지, 천주교 선교사들의 저작들이 꾸준히 전래되었다. 이들은 그 나름대로 서양에 대한 앎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서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 전달의 속도나 파급의 차원에서 보자면 오랫동안 매우 지체된 양상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통상과 교류의 파트너가 된 서양 그리고 동쪽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는 서양에 대한 지식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되고 정리될 필요가 생기면서 등장한 것이 곧 『한성순보』였던 것이다. 애초에 박영효와 유길준과 같은 개화파들이 기획했던 것처럼 근대적인 언론의 확보, 신문이라는 파급력이 큰 매체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실행되었

2) 김규환, 「한성순보 해제」, 『한성순보』(축쇄판 영인본), 1969 참조. 또한 『한성순보』 발간의 막후와 실질적인 인쇄 및 제작 과정을 박천홍, 『활자와 근대』(너머북스, 2018)에서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면, 굳이 '외신을 위주로 한' 순한문 매체가 탄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독자적인 근대 신문 발간의 역량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신문에 의존하여 시도된 것이『한성순보』지만, 이 매체는 분명하게 세계 특히 서양에 대한 정보가 '새로운 뉴스'의 핵심이라는 점을 꿰뚫고 있었던 매체이기도 했다. 창간호의 '순보서旬報序'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세계'의 지식들이란 "世務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될 것"들이며, 외신을 널리 번역하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외에 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매우 실용적인 일이기도 했다.『한성순보』의 편집자들은 "船舶이 전 세계를 누비고 電線이 서양까지 연락되었는 데다가 公法을 제정하여 국교를 수립하고, 항만·포구를 축조하여 서로 교역"하는 마당에 "南北極·熱帶·寒帶 할 것 없이 이웃 나라와 다름이 없"어진 세계를 절실하게 받아들이려 했다. 이는『한성순보』의 기사들이 포괄하고 있는 그 '이웃'의 범위가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실증된다.

『한성순보』에는 마다가스카르 사건, 스와질랜드 소식, 아프가니스탄 소식 등등 당대의 조선인들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매우 생소할 뿐일 기사들 또는 조선의 사정과는 그다지 일말의 관계도 없어 보이는 저 먼 나라들의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조선 독자들에게 '蘇祿國王戰死(스와질랜드 국왕이 전사함)', '亞業加斯坦王得英之祿金(아프가니스탄 국왕이 영국의 녹금을 받음)', '緬甸世子未知行處(미얀마 세자의 행방이 묘연함)'과 같은 기사들이 무슨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는 외신들 특히 로이터 통신을 독점적으로 받아 적고 있던『字林滬報(자림호보)』[3]를 비롯한 상해와 홍콩의 신문기사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

3) 1864년부터 英商 字林洋行이 발간한『字林西報』(North China daily news)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을 독점적으로 게재하는 특권을 누렸고, 이의 중문 자매지『滬報』(1882~1891) 역시 영자신문『자림서보』가 독점한 로이터통

에 생긴 일이다. 그러나 이 기사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적지 않다. 당시 『한성순보』의 편집진들이 의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 기사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당시 세계의 '식민지들'에 관한 정보들이었고, 특히 영국 등 '제국'의 필터를 직간접적으로 거친 정보들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필터는 고정적이고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고 『한성순보』가 의존하는 매체들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예를 들면 당시 상해 신문의 양대 산맥인 『滬報(호보)』와 『申報(신보)』의 기사 내용과 논조의 차이가 그대로 『한성순보』의 기사를 통해 전달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성순보』에는 독일과 영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와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와 부침(浮沈)에 대한 기사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성순보』에는 중국 개항장 신문이라는 매개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1883~4년 당시 전 세계 '식민지들' 및 '제국들'의 사정이 광범위하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한성순보』 기사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프랑스-월남 관계, 그리고 프랑스-청의 전쟁(청불전쟁) 관련 기사라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청불전쟁을 연구하는 데 이 매체가 주요 자료로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한성순보』가 지면화한 프랑스-베트남 전쟁이나 청불전쟁의 기사들은 전쟁이 급박하게 전개되던 해당 시기의 일간신문 기사들을 수집해서 '두세 달 뒤에' 책자 형태로 제시한 것이었다. 예컨대 1883년 7월 13일에 있었던 프랑스군과 흑기군의 전투에 대해 쓰고 있는 『滬報』의 8월 초 기사 사흘치가 약 두 달 뒤 『한성순보』 2호(1883년 10월 11일자(음)) 안에 한꺼번에 제시되어 있는 식이

신의 전신을 또한 독점하였다.(《北華捷報/字林西報》完成數字化制作 將開放查詢, 中國文明网, 2016. 4. 29)

다.[4] 즉『한성순보』의 기사들은 어제오늘의 뉴스, 최근의 소식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앎)'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이는 정보의 형식적 측면 즉 신문기사의 구성과 배치가 제공하는 앎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한성순보』의 외신 보도에서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매체를 통해 청불전쟁의 어떤 면을 알 수 있는가' 못지않게 '정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즉 '정보를 어떻게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이『한성순보』가 '각국근사'를 통해 매일매일 산출되는 외국 일간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집적하는 가운데 이 매체가 발간되던 1883~4년이라는 특정한 시기 세계 제국주의의 움직임과 식민지의 사태들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였다.[5]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청불전쟁[6], 개화사상[7], 과학사상[8] 등 편집진이나 발간주체의 '인식', '사상'에 집중했다면, 이

4)『한성순보』16호(1884년 3월 1일자(음))에도 프랑스의 박닌 공격과 관련한 2월 신문기사 네 건이 연달아 실려 있다.

5) 관보와 외신에 해당하지 않는 기사를 따로 모은 '국내사보'의 경우에도 대체로 조선 내의 외국인, 외교관 관련 소식, 조선인과 외국인 사이의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과 외국 그리고 조선인과 외국인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관련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각국근신'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6) 한실비,「漢城旬報의 淸佛戰爭 보도에 나타난 개화지식인의 대외인식」, 단국대 석사논문, 2015 ; 장보운,「1880년대『漢城旬報』의 중국 인식」,『규장각』48, 2016

7) 정대철,「漢城旬報.周報의 開化方向에 관한 考察」,『동아시아문화연구』5, 1984 ; 최정화,「한성순보에 나타난 문명 개화론적 성격」,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문성규,「漢城旬報의 開化思想에 관한 硏究 :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0 ; 한보람,「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진단학보』100, 2005

8) 이경언·신현용,「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수학 관련 기사에 관한 고찰」,『수학교육』48(3), 2009.08 ; 김연희,「『한성순보』및『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한국과학사학회지』

글에서는『한성순보』에 나타나 있는 세계 각지의 정보들이 가진 성격과 지면에서 그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세계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며 전파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한성순보』가 뚜렷한 편집 방침과 논조를 가진 신문이 아니었기 때문에『한성순보』에 반영된 입장과 논점을 이 매체 자체의 세계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은『한성순보』가 집적한 정보들과 구성된 지면들에 작동하고 있는 당대 국내외의 담론 장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조선 안팎에서 당대에『한성순보』의 기사를 둘러싸고 특정한 공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거나 활발하게 이러한 앎이 공유되었음을 실증하는 현장들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이 매체의 주된 독자들(한학 지식인, 관리)과 이 매체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물론 잘 알려진 대로『한성순보』가 갑신정변의 발발이 계기가 되어 발간이 중단되었던 만큼,『한성순보』가 전달하고자 했던 새로운 앎과 담론의 현실이 직간접적으로 갑신정변과 같은 사건 또는 현상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는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당대 담론 장 형성의 배경 또는 밑그림으로서『한성순보』의 기능과 역할을 사고해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한성순보』의 지면 구성이 당대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차원에서 어떠한 위상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가 1년여라는 길지 않은 그러나 매우 밀도 있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한성순보』라는 매체의 독특한 함의를 드러내는 데 기

33권 1호, 2011 ; 김수자,「근대 초『한성순보』에 나타난 공학으로서의 과학과 '근대 지식'」,『이화사학연구』45, 2012 ; 한편 이 매체의 과학·학술 관련 기사들의 전거를 규명하고 있는 논문도 제출되었다(이상재,「한성순보 구성의 연원과 학술기사의 재구성 양상」, 서울대 석사논문, 2017)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9]

2. 불화와 반란의 시대 : 식민지 동향과 열강의 외교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한성순보』에 매호 수록되는 '각국근사' 즉 외신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프랑스의 월남 침공, 그리고 이로 인한 프랑스와 중국 및 열강들 간의 갈등과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한성순보』는 당시 인도차이나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불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883년 8월 월남이 끈질긴 프랑스의 공격 끝에 보호령으로 전락한 뒤에도 중국을 대리한 월남 내의 흑기군(黑旗軍)과 프랑스의 교전은 끊이지 않았고, 1884년 5월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결국 이 화친조약이 깨지면서 프랑스와 중국 양자 간의 갈등과 협상 과정이 지루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은『한성순보』의 기사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분쟁과 청불전쟁 이외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의 혼란과 이들 영토를 둘러싼 열강의 혼란스러운 각축전은『한성순보』를 통해서 시시각각 조선에도 흘러들어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 열강을 대표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불편한 관계였다. 식민지 경영에 열을 올리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던 두 나라였던 만큼,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때때로 부딪치며 위기를 고조시켰다.『한성순보』를 통틀어 이 두 강대국의 관계를 언급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

9) 본문에 인용한『한성순보』의 인용문은 원자료인 한문본과 한국언론재단의 번역본을 함께 참조하였다. 인용된 기사 제목 앞에 부기된 일련번호 1), 2), 3)은 모두 기사 게재 순서에 의거해 인용자가 매긴 것이다.

『한성순보』	기사 제목	원 출처
1호 4)(1883.10.1)[10]	馬達加斯加事近報 (마다가스카르 섬 사건에 대한 近報)	
3호 1)(1883.10.11)	詳述馬達加斯加近事 (마다가스카르 섬 근사 상술)	『申報』
3호 25)	暹緬不和(태국과 버마의 불화)	
4호 2)(1883.11.1)	法與日英開釁 (프랑스가 스페인 영국과 틈이 생기다)	西報(서양 신문)
5호 7)(1883.11.11)	越事瑣譯 (월남 사태에 관한 소소한 번역)	홍콩 西字報 (홍콩 영자신문)
5호 8)	法電補錄(프랑스 전보에 대한 보충 기록)	
5호 31)	法報疑論(프랑스에서 보도한 疑論)	사이공의 프랑스어 신문을 인용한 상해 신문
11호 25)(1884.1.11)	論中法和象(중국과 프랑스의 和象을 논함)	각국 신문
22호 28)(1884.5.1)	英法啓釁傳言 (영국과 법국 사이가 벌어짐을 전하다)	『申報』
24호 7)(1884.5.21)	法人大欲(프랑스인의 큰 욕심)	영국摩寧普士日 (모닝프레스)

이들 기사들은 크게 1) 마다가스카르 등지의 영토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불화를 겪고 있음, 2) 월남 문제로 프랑스와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청과 통상관계인 영국이 이에 개입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관계'의 서술은 다양한 출처(『申報』, 『滬報』, 영국 신문, 프랑스 신문)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진술되고 있지만 실상 그 논조가 대체로 모아지는 양상을 띤다. 우선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측의 신문들과 갈등 당사자인 영국계 신문들이 프랑스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컨대

10) 이하 날짜는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한성순보』(한문본) 첫 면에 표기된 음력을 따른다.

1호의 '近報'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화의 단서가 생겼으나 참고 있다고 전한 반면, 상해의『申報』의 기사를 가져온 3호의 1)詳述馬達加斯加近事(마다가스카르 섬 근사 상술)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다.

> 영국의 商·旅가 이곳에 주거하고, 이곳에 무역하는 예가 매우 빈번하므로, 영국당국에서 프랑스의 행패를 명시해서 저지하지는 못하나, 내심 못마땅하게 여겨 온 터이다. (…)
>
> 이태리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프랑스를 깊이 저주하고 있으며, 지금 마다가스카르 사건에 프랑스는 다시 영국을 激怒시켜 싸움의 단서가 형성되었으니, 이전의 좋은 隣國이 이제 강한 敵國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독일도 본시 프랑스와 宿怨이 있어, 마치 마른 섶과 峻烈한 숲에 불만 닿으면 타버릴 것과 같은 형편이요, (…)
>
> 이태리와 프랑스의 원한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다면, 독일과 이태리가 어찌 프랑스의 후방을 그냥 두겠는가. (…)
>
> 프랑스의 숨은 걱정거리가 절박한 데도 오히려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많은 군사를 동원, 먼 바다를 건너와서 중국을 상대로 월남을 다투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노릇이다.

위의 인용 기사는 프랑스가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태리, 독일과도 불화의 씨앗을 키워 왔으며 이들 국가들이 프랑스를 증오하고 있는데도 그 절박한 걱정거리를 외면하고 먼 월남에서 중국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으니 '애석하다'고 표현한다. 이는『申報』가 상해와 홍콩의 여타 신문들과 달리 그 신문 발간 주체들이 주로 중국인들이었고 또한 영자신문에 의존하고 있는『滬報』와 달리 영국적 색채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논설 기능이 매우 강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11]

한편 위의 표에서 5호의 기사들은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영국

11) 중국 개항장 신문들의 역사와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김미지, 앞의 논문 참조.

이 중재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홍콩의 영자신문을 통해 먼저 보도하고(7번 기사), 이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8번 기사). 그런데 사이공의 프랑스어 신문에 나타난 '영국의 꿍꿍이에 대한 프랑스의 의심'에 대해 이 기사를 번역해서 게재한 상해의 신문은 "이상은 모두 프랑스 신문의 보도인데, 여기에 번역 기록하여 온 천하 사람들에게 프랑스 사람의 疑忌하는 마음이 언제나 똑같다는 것을 周知시키는 바"임을 명시한다(31번 기사). 즉 프랑스의 입장을 번역해서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속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서양 각국의 신문을 인용보도하고 있는 11호의 기사 25)에서는 "영국이 어찌 상무를 불문에 붙이고서 프랑스인의 稱兵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라는 영국 泰晤士報(타임즈)의 기사, "프랑스인이 만일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타국만 允准해 주지 않을 뿐이 아니라, 우리 영국도 결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쓴 師登達報(Standard)의 기사를 인용한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접수한 영국 전보를 인용, "중국과 프랑스가 만일 묵은 감정을 풀고 거듭 舊好를 닦기 위하여 우리 영국 조정에 조처해 줄 것을 위임한다면, 영국 조정은 반드시 장차 힘써 그 책임을 담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즉 이 역시 프랑스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 비판을 담은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24호의 기사 7)은 "영국인은 조심하여 평화를 보고하고 항상 4개洲와 길을 열어 오가며 무역할 수 있는 형세를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프랑스인은 오로지 땅을 개척하는 데만 힘을 써서 武德을 더럽히고 전쟁을 함부로 함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영국 런던 모닝프레스(摩寧普士日, Morning press)의 기사를 전재하여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부정적 여론의 일단을 강하게 환기하기도 한다.

한편 3호의 25)暹緬不和(태국과 버마의 불화)의 경우는 강대국과 싸우는 약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약자들 간의 대리된 싸움을

기록하는 논자의 시선이 포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 기사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태국과 미얀마가 각각 영국과 프랑스와 결탁하여 힘을 얻고자 함으로써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월남뿐만 아니라 태국과 미얀마가 영국과 프랑스 간 충돌의 접점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들 나라가 자기 꾀에 넘어가 열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과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들 역시『한성순보』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순보』	기사 제목	원 출처
1호 7)(1883.10.1)	蘇祿國王戰死(스와질랜드 국왕 전사)	
1호 8)	亞業加斯坦王得英之祿金(아프가니스탄 왕이 영국의 녹금을 받다)	
1호 11)	緬甸世子未知行處(미얀마 세자의 행방 묘연)	
2호 1)(1883.10.11)	英兵駐埃及(영국군사가 이집트에 주둔)	상해 신문(上海報)
2호 2)	要償損害(손해배상을 청구하다)	상해 신문(上海報)
5호 28)(1883.11.11)	波斯追加條約(페르시아가 추가 조약을 체결하다)	일본 신문
6호 13)(1883.11.21)	古巴亂耗(쿠바에서 항거가 심함)	뉴욕 우편
8호 45)(1883.12.11)	越王被弒(월남 왕이 피살되다)	海防(하이퐁) 우편
9호 4), 24)~26)(1883.12.21)	마다가스카르, 아라비아, 인도, 아일랜드에서 폭란이 일어남	
13호 15), 16)(1884.2.1)	이집트, 페르시아의 반란	
16호 35)(1884.3.1)	埃國財政(이집트가 영국 주둔비 부담과 배상금으로 재정곤란에 처함)	
21호 5)(1884.4.21)	金邊歸法(캄보디아가 프랑스에 귀속되다)	홍콩『華字日報』

대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식민지들의 동향과 사정을 보여주는 이 기사들은 1) 단순한 사실 관계만이 기술된 경우와 2) 논평이나 감상이 부기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자

의 경우 그 논조가 제각각인 점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예컨대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1호 8)번 아프가니스탄 관련 기사에는 인도 주변 야만인들을 통제하려는 영국의 "교활한 계략"을 지적하고, 2호의 1)번 이집트 관련 기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간섭으로 "자칫하면 이집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됨"을 경계한다. 또 같은 호 2)번 기사에 유럽 모든 나라가 알렉산드리아 변란을 구실로 이집트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결국 이 배상금 문제로 이집트가 극심한 재정 곤란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16호 35)번 기사에 보인다. 그밖에도 쿠바, 월남, 마다가스카르, 인도, 아일랜드,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의 반란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대항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역시 식민지가 처한 입장에서 기술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국왕이 프랑스에 예속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였음을 전하는 21호 5)번 기사에서는 "이것은 뱀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12]라는 한탄이 덧붙여져 있다. 『한성순보』의 것인지 혹은 출처인 원 자료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아메리카주를 설명하는 3호의 기사에 "손님은 강하고 주인은 약해서 조상이 살던 땅을 빼앗기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으니 슬픈 일이다."라는 논평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반대로 완전히 다른 논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1호(1883.10.1) 論州洋[13]

지금 中國 해변의 群島중에서 香港(홍콩)은 영국의 속지로서 東洋

12) "金君之不知時務如此是奚異於引蛇入宅哉其愚甚矣"

13) 『한성순보』 제1호 창간호에서는 旬報序, 內國紀事, 各國近事가 순서대로 나오고, 지구 전도와 함께 地球圖解, 地球論이 그리고 이어서 論洲洋이 마지막으로 수록되어 있다. 論洲洋은 연쇄 기사로 1호에서는 아시아주에 대한 백과사전적 설명이 등장하고 2호에서는 유럽주, 3호에서는 아메리카주, 4호에서는 아프리카주, 5호에서는 오세아니아주가 차례로 소개된다.

의 번화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이 일찌기 이곳에 鎭臺를 쌓고 많은 군함을 근해에 배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4호(1883.11.1.) 亞非利駕洲(아프리카주)

그 인종은 모두 흑색인에 속하는데 야만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 이른바 야만인이란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집트와 마다가스카르 및 유럽 제국의 속국은 점차 개화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다.

9호(1883.12.21) 日耳曼將移民於南阿非利加(독일이 남아프리카에 이민을 보낼 듯하다)

대체로 독일의 民俗은 移住하기를 즐겁게 여기는데, 지금 政府로부터 移民策을 盛行하고 있으니, 앞으로 아프리카의 南部는 장차 일대 富國이 될 것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겠다.

아시아주와 아프리카주에 대한 개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1호와 4호 말미의 글은 '각국근사'와 달리 시사적인 내용이 아닌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백과사전적 정보를 담고 있고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영국이 홍콩에 군함을 배치하여 '보호'한다거나, 홍콩이 영국 덕에 '동양의 번화(繁華)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기술, '유럽 제국의 속국들이 점차 개화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진술, 독일의 이민정책으로 '남부 아프리카가 일대 부국이 될 것'이라는 기술은 매우 서양 중심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양 서책의 한역본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4] 여기에는 위에서 보듯 캄보디아와 아메리카에 대해 필자 또는 인용자가 내보인 '애석함', '슬픔'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中國公報館』에서 가져온 8호의 논설에서 "천하 절반이 서국 압제 하에 있으니, 어쩌다

14) 이상재, 앞의 논문(2017)에서 『한성순보』 학술기사들의 출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에 대한 지리지 성격의 이 글들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이 이지경이 됐나" 한탄하는 논조와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러 논조와 서술 태도가 뒤섞여 있는 것은 『한성순보』가 동시기에 발행되던 중국과 일본의 신문뿐만 아니라 몇 년의 시차가 있는 『中西聞見錄』과 같은 잡지[15], 한역 서학서,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서책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 또는 전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16] 즉 『한성순보』는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취사선택하거나 특정한 논조를 일관되게 표출한 매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판단을 독자의 몫으로 남기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보자.

> 9호(1883.12.21.) 기사 32) 錄曾襲侯照會(증습후의 조회를 기록하다)
> 曾襲侯가 프랑스 外務大臣에게 조회한 文稿가 外洋을 거쳐 전해 옴으로써, 字句 사이에 잘못된 곳이 있어 文義가 자못 통창하지 못한 곳이 있으니, 열람하는 이가 뜻을 미루어 해득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申報』)

> 10호(1884.1.3.) 기사 17) 法兵受創述聞(프랑스 군사가 상처를 입은 이야기를 듣다)
> 서양보도의 傳聞과 비교하면 말이 다른데, 꼭 말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니, 열람하는 자가 스스로 會悟해야 한다고 하였다. (홍콩 『維新日報』)

> 14호(1884.2.11.) 기사 26) 論法人割地索賠之謀(프랑스인들이 땅을 뺏고 배상하라는 계책을 論함)
> 이상 論의 是非는 申報에 실려 있으니 보는 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살필지어다(右論之是非係申報覽者當自審察). (『申報』)

---

15) 『中西聞見錄』(1872~1873)은 『한성순보』가 발간되기 10년 전에 이미 폐간된 매체이다. '서구학문과 신문물 소개', '雜記', '각국근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한성순보』가 모델의 하나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순보』는 이 매체에서 외국 문물, 과학 지식 관련 기사들을 10여 건 인용하고 있다.

16) 한보람, 앞의 논문(2005), 이상재, 앞의 논문(2017) 참조.

위 9호와 14호의 기사는 각각『申報』에서 보도와 논설을 가져온 것인데 9호의 경우 "열람하는 이가 뜻을 미루어 해득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한 것은 원자료인『申報』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14호 논설 말미에 실린 "보는 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살필지어다"라는 문장은 이 논설을 게재한『한성순보』편집자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근대 신문에서 사실보도(fact)와 논설(opinion)을 구분하는 관례와 관련되며, 이미 서양 신문지들을 통해 근대 신문을 학습한 개항장의 중국어 신문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17] 따라서『한성순보』처럼 독자적인 논설적 기능을 갖지 않았던(또는 스스로 배제했던) 매체로서는 이러한 근대신문의 태도를 학습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대 신문의 속성이자 핵심 가운데 하나인 '리얼한 사실보도의 추구'와 사실 여부를 보증하는 '근거의 신뢰성' 문제는 한성순보의 지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베트남 전쟁'과 '청불전쟁' 관련 전황 보도와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이슈로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한성순보』에 등장하는 일련의 전황 보도들과 그 배치가 그 원 출처인 중국과 일본의 일간신문과 달리 어떤 특징과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3. 풍문과 전언의 시대 : 청불전쟁의 전황 보도와 정보전

『한성순보』가 당대 동아시아의 어떤 신문들과도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바로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되었다는 점일 터인데, 이러한 발간 주기는 의도치 않게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들을

17)『申報』의 경우 1면 제일 첫 부분에 논설을 게재하고 이후 내외기사(주로 국내), 광고 및 정보, 京報(全錄)를 수록하는 체재로 되어 있어 논설의 기능을 매우 중시했다.『滬報』의 경우는 크게 각종 내외 기사-관보-상업광고의 순서로 편집되었다.

낳게 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바로 중국과 일본의 일간신문들 며칠 치를 한데 모아서 병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호(1883. 10. 11(음))에는 『滬報』의 8월 1일, 3일, 5일자(음력) 기사 여덟 편이 연이어 게재되어 있다. 이는 모두 프랑스와 월남사건을 다룬 것들이다. 그리고 『滬報』에 실린 원 기사들 역시 정보의 출처를 '로이터 통신', '홍콩보', '관보', '홍콩중외신문' 등으로 정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성순보』가 이들 기사들을 단순히 날짜별로 또는 매체별로 순서대로 나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3호(1883. 10. 21)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두드러지는데, '각국근사' 총 30편 가운데 『申報』에서 가져온 유일한 기사인 '마다가스카르 섬 근사'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이후 2) 滬報』의 8월 7일자, 3) 11일자, 4) 17일자, 5) 18일자가 연이어 나온다. 이는 모두 프랑스와 월남, 흑기군 관련 기사인데 이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 2) 補錄法軍敗績事(프랑스 군사가 패전한 사실에 대해 보충 기록하다)
> 월남 사태에서 프랑스 군사가 黑旗軍에게 패배한 사실에 대해 전번의 기록은 상세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월남에 가서 취재한 사람의 傳言에 의하면, (…) 프랑스의 官報에 의하면, 이번 싸움에 겨우 군사 12명이 전사하고 武官 2명이 부상했다고 하였으니, 이는 패전을 숨기려는 프랑스 사람의 거짓말이다. 사실 이번 싸움에 프랑스 군사는 수백명이 사상하였고, 흑기군에서도 30명이 사상했다 한다. 이상은 8월 7일 字林滬報에 나왔다.
>
> 3) 法軍續敗(프랑스 군사가 연속 패하다)
> 프랑스 군사가 흑기군에게 패한 상세한 실황은 전번 보도에 거듭 소개되었으므로, 여기에는 그들이 패전한 이후의 실황을 소개할까 한다. (…) 하지만 이번에는 흑기군의 聲勢가 워낙 대단하여 프랑스 군사가 그만 喪氣되었으니, 이는 소위 장군은 죽을 마음이 있고 사병들은 살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프랑스 군사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 아닌 형편이었다. 이 사실은 港報에 매우 상세히 보도되었으므로, 本社(滬報-인용자)에서는 그 줄거리만 기록한다. 이상은 8월 11일 字林滬報에 보인다.

4) 補述越南降法事(월남이 프랑스에 항복한 사실에 대해 보충 서술하다)

(…) 이번 계속된 싸움에 월남 군사가 6천여발의 포를 쏘았으나 끝내 보존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이는 天意가 아닐 수 없다. 19일 아침에 프랑스 총독 夏文이 포대로 옮겨 주둔하고 월남의 최후 회답을 기다리므로, 월남왕이 걱정에 빠져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總理 外務大臣을 프랑스 진영에 보내 다시 화의를 청하였는데, (…) 평론가들은, 이번 중국에서 기꺼이 지원만 해 주었던들 절대로 여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상은 8월 17일 字林滬報에 보인다.

5) 海防來信(하이퐁 소식)

하노이 지방은 이전처럼 조용하고, 南定에는 프랑스 군사가 주둔해 있으나 부근에 주둔한 월남 군사가 여러 차례 침입하므로 피차 싸움을 벌여 각기 손상을 보았다 한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패전을 숨겨 승리로 과장하여 월남 군사는 사상자가 많고 프랑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하므로, 이는 모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 이상은 8월 18일 字林報에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8월 7일자 기사에서 '프랑스 군사의 패전'을 전하고, 다음 11일자 기사에서 그 후속 기사로 홍콩의 신문에 게재된 상세한 전황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17일자 기사는 월남이 프랑스에 항복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보충 서술하면서 '중국이 도와줬으면 이에 이르지 않았으리라'는 평가를 담고 있고, 18일자 기사는 하이퐁(海防) 상인이 가져온 소식임을 전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패전을 숨겨 승리로 과장하여 월남 군사는 사상자가 많고 프랑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하므로, 이는 모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전언을 보도하고 있

다. 즉 『한성순보』의 지면은 수일에 걸쳐 발행된 신문지에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택된 정보를 동일한 지면에 배열하여 자연히 그 주제를 심화 또는 확장시키고 있는 셈이 된다. 말하자면 『한성순보』 3호를 열람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프랑스의 패배'라는 몇 달 전 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둘러싸고 형성된 파생 정보들과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나날의 '뉴스'를 전하며 어제의 기사가 오늘의 기사로 덮이고 묻힐 수밖에 없는 일간신문에서는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 될 수 있다.[18] 특히 이후의 기사들은 중국의 무기 및 포선 구입(晋源報, 독일 신문(德國日報)), 미국과 스위스, 미국과 벨기에 사이의 조약 체결, 독일과 프랑스의 교섭(『滬報』 8월 10일자), 러시아의 近信(러시아 소식, 독일 신문) 등 기타 외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쪽에 프랑스-월남 관련 연속 기사를 배치하고 말 그대로 각국의 '근사'를 나열한 것은 의도한 편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성순보』에 실린 모든 기사에 출처와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단순히 '近報', '西字報', '上海報' 등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많고, 날짜 없이 출처만 표시된 경우도 많다), 명시되어 있는 것 그리고 중국 신문과 대조하여 출처와 날짜가 확인된 것[19]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그런데 '각국근사'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주제별, 국가별 목록화를 염두에 두는 이러한 경향은 꽤 일관되게 확인된다. 14호의 경우를 보면, 『申報』의 1월 16일자 기사를 출처로 하여 9)'하이퐁 近信'을 실은 뒤, 11)번 기사에 '프랑스 신문의 번역'(『申報』 1월 17일자),

---

18) 『한성순보』가 신문이 아니라 잡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한때 강하게 제출된 적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춘근, 「잡지모체로서의 한성순보」, 『언론연구논집』 2-1, 1984 ; 정진석, 「한성순보의 잡지 논쟁 」, 『출판학연구』, 1997 참조.

19) 김미지, 앞의 논문에서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申報』와 『滬報』의 동시대 기사들과 『한성순보』 기사의 실물 대조작업을 한 바 있다.

12)번 기사로 프랑스 장수 쿠베 제독 소식이 담긴 1월 18일자, 13)번 기사로 1월 14일자 기사를 연달아 배치하고 있다. 18일자 기사는 홍콩 西字報(영자신문)에 실린 서양인의 서신에 근거한 것이고, 뒤의 14일자 기사는 외양 신문을 그 정보 출처로 하고 있다. 전자는 쿠베제독이 중국의 독일 제독 마이어와 의논을 했다는 내용이고, 후자는 쿠베 제독이 자기 나라로 글을 보낸 것으로 보아 스스로 (전세를) 위태롭게 여김을 방증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 순번	『한성순보』 14호 기사 제목	『申報』 게재날짜(음력)[20]	원 출처
9)	海防近信	1. 16	하이퐁 西人, 『維新日報』
11)	法報譯錄	1. 17	프랑스 신문 번역
12)	法師傳聞	1. 18	
14)	法師自危	1. 14	

한편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1884년 5월 11일(음력 4월 17일) 체결된 '텐진 정전협정'이 주요 보도 내용을 이루고 있는 22호는 『申報』의 기사 10여 개를 1)번부터 연달아 배열하면서 그 날짜를 대부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순번	『한성순보』 22호 기사제목	『申報』 게재날짜(음력)
1)	和議에 對한 確實한 電報	4. 20
2)	和議의 條約內容	4. 21
3)	和約書를 가지고 本國으로 돌아가다	4. 26

20) 『한성순보』에는 이들 기사의 출처가 『申報』라고만 되어 있을 뿐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필자가 중국 『申報』와 실물을 대조하여 날짜를 확인하였다. 또한 9)번 기사는 『申報』가 『維新日報』를 인용 전재한 것을 발췌 게재한 것이며, 이하의 기사들은 『申報』를 전재한 것임이 확인된다.

4)	河內의 近來消息	4. 29
5)	江의 防務를 巡閱하다	4. 21
6)	兵勇을 募集하다	4. 21
7)	團練을 조직하다	4. 21
8)	軍糧을 釀出하는데 좋은 方法	4. 24
9)	厘卡의 積弊	4. 24
10)	勇兵을 募集하여 蘇防에 到着하다	4. 25
11)	快連船이 또 竣工되다	5. 1
12)	江陰에 電局을 設置하다	?
13)	銅斤을 준비하다	?
14)	京師의 郵電	4. 18

1)~3)번 기사는 모두 중국과 프랑스 사이의 和議(정전협정)를 다룬 것인데, 1)이 화의가 단지 풍문이 아닌 사실임을 확정하는 전보의 내용을, 2)가 조약에 명시된 5개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은 프랑스의 흠차대신 푸르니에가 이홍장과 약정한 5개조의 화약서를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갔음을 보도한 것이다. 이는 『申報』에 게재되었던 순서대로 배치한 일련의 연속 기사들인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후의 기사들인 5)~7)은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교전 준비 상황과 방비책에 관한 것이다. 이미 화친을 한 마당에 이런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기사들이 협정이 맺어졌음을 확인한 시점(4월 21일)과 동일한 날짜에 『申報』에 게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 상황이라는 불투명함과 급박함이 낳은 혼란이 『申報』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는 그대로 『한성순보』에까지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8)번 이후의 기사들은 화친이 성립되어 엄중한 방비는 필요 없는 상황이지만 변방의 경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한성순보』가 열흘에 한번 발행한 만큼 그간 발행된 일간신문들에서 '외신기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추

리고 선택 배열하는 작업을 거쳐 기사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21] 무엇보다도 외래 지식의 집적과 세계에 대한 앎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의 지면 안에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이 동시적으로(읽는 순간에는 순차적이지만) 제공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당대의 독자들에게나 현재의 독자들에게나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한층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전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속보'가 수집되고 집적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전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란 전보나 서신에 겨우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통신 환경에서는 매우 어렵고 곤란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일간신문들의 속성상 속보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온갖 노력이 경주되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현지인들이나 왕래하는 상인들의 전언과 풍문이다. 근거를 담보하지 못하는 온갖 풍문이 기사에 등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당시의 일간신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전황을 보도하던 상해의 신문들은 이 풍문과 전언을 기록하면서도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 "확실한지의 여부는 아직 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상해와 홍콩의 일간신문들과『한성순보』의 지면을 비교해볼 수 있다.

2호의 4) '安南近事彙報'(『滬報』 8월 1일자)

이틀밤낮동안 교전으로 프랑스인은 7백여 명, 흑기군은 170명 죽었다 한다. (…) 이는 어디까지나 풍문에 불과하다. 그 時日이 상세하지

21) 언제나 일관되게 견지되지는 않았지만, 16호와 17호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듯 '각국근사'에 걸맞게 전체 기사를 국가별로 배치하는 형식도 시도되었다. 16호의 '각국근사' 44건은 청불전쟁(14건)-영국(9)-러시아(5)-이탈리아(2)-독일(4)-이집트(1)-포르투갈(1)-프랑스(1)-미국(2)-논설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17호의 43건은 청불전쟁(17건)-영국(6)-독일(1)-러시아(1)-중국(3)-일본(3) 등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못하여 사건의 확실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아직 그대로 기록하여 新聞의 體裁만 갖추는 바이다.

2호의 9) '黑旗軍全勝' (『滬報』 8월 5일자)

하이퐁 商人의 傳信에 따르면 프랑스군과 교전에서 흑기군이 대승을 거둬 프랑스군이 몰살당할 뻔하다. 프랑스 군사는 8,9백 명, 흑기군은 백여 명이 사상했다고 한다.

2호의 11) '補述港報記法粵事' (홍콩의 『香港中外新報』를 전재한 『滬報』의 8월 5일자)

이때 중국의 客商과 모든 서양 사람들이 현장에서 관전하다가 흑기군의 一當百하는 용기를 보고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연일 패전을 거듭한 프랑스 군사는 半數 이상을 중국에서 모집했기로 본국에서 징발되어 온 것이 아니므로, 아무리 연패를 당하였으나 아직도 上海에 남아있는 군사가 말을 구입하여 安南으로 오려 하였는데, 風浪이 심한데다가 日氣까지 무더워서 이미 10에서 7割이 죽어 갔다고 하는데, 이 사실의 확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프랑스가 누차 흑기군에게 패하자, 지금 兵船을 동원하여 安南의 수도를 공격하려 한다고 하니, 이는 수도가 흑기군의 駐營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해에서 『滬報』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8월 1일 기사에서 프랑스군이 흑기군에 대패했다는 '풍문'을 접하게 된다. 속보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근거가 불분명한 풍문을 보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전쟁 중'이라는 상황 논리가 떠도는 풍문을 '신문의 체제' 안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상인이 전해온 傳信이 그 며칠 뒤 8월 5일자 기사에 인용되면서 프랑스의 패배를 전하고 있는데 프랑스군의 사망자 수가 앞의 기사보다 더 증가해 있다. 마지막 기사는 홍콩의 『중외신문』 기사를 옮겨 실은 것으로 '현장에서 관전한' 이들을 언급하며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주지만 역시 "사실의 확실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서술

로 의문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22]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사례를『한성순보』28호에서도 볼 수 있다. 1884년 7월 22일(음력 6월 1일) 발간한 28호에는 중국과 프랑스의 화친이 결국 무효화되고 본격적인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십여 건 등장한다. 가장 먼저 제시된 첫 번째 기사 1)은 홍콩의『循環日報』에서 중국 내 천진과 북경 등지의 서양인 여럿이 전한 소식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전언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곧 중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리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2)번 기사가 바로 "중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이미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접한『申報』의 윤5월 16일자 기사이다. 뒤이어 3)번에『申報』에 실린 '화친이 깨진 원인'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사방에서 그 원인을 탐문했으나 확실한 정보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후로 4)~7)번 기사로 홍콩의 신문 기사들을 전재하여 전투 상황을 전하고 있는『申報』의 10일자, 13일자, 15일자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즉『한성순보』의 편집자는 '전쟁 개시'를 알리는 윤5월 16일자 기사를 먼저 배치해 놓고, 그에 앞서 산출된 사흘치의 교전 소식들을 뒤편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보면『한성순보』에서는 시차(時差)를 가진 일련의 이야기들이 보충 또는 확장되는 과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 홍콩은 상해보다 베트남과 더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홍콩의 신문기사들이 비교적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황을 보도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상해의 신문들은 홍콩의 신문들을 전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해와 홍콩 신문들의 '상호 전재'와 관련해서는 陳曉平,「『述報』是香港《中外新報》子報－破解一樁」,『南方都市報』,2017. 1. 17. "歷史"版 참조.

기사순번	『한성순보』 28호 기사 제목	『申報』게재날짜 (음력)	원 출처
1)	西信報彙譯	?	홍콩『循環日報』
2)	驚信紛傳(놀라운 소식이 요란하게 전해지다)	윤5. 16	서양인 관청 등
3)	화친이 깨지게 된 원인	?	
4)	傳言照述(전해온 말을 기록한다)	윤5. 10	홍콩『중외신문』 전재
5)	津人述戰(천진 사람이 기록한 전투)	윤5. 13	천진에서 온 소식
6)	續述諒山戰事(양산전투를 이어서 기록)	윤5. 15	홍콩 西字報(영자신문)
7)	越南近事(월남의 근일사건)	?	사이공 法字報를 실은『循環日報』

그런데 사실 소문과 유언비어라는 것 역시 전쟁에서 대적하는 양 진영의 정보전의 산물로서 전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신문 역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다음 서술에서 볼 수 있다.

> 4호 3) 詳述黑旗戰捷事(흑기군의 승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다)
>
> 越南 전쟁에 대한 기사는 모두 소문에 의한 것이요, 현장을 직접 수행하여 사실을 취재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 사람들은 본시 숨기는 바가 많아서 남들이 軍中의 소식 퍼뜨리는 것을 엄금하고 오가는 書信도 일체 검열을 실시하므로 사람들이 혹시 그 금법에 저촉될세라 저마다 입을 다물었고 그중의 전해지는 소식도 모두 가짜였으며, 각 신문사의 기자 또한 종군 취재할 수 없어 언짢은 심정으로 되돌아오곤 하므로 모든 소식이 다 자세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번 粵西에서 들어온 체신에(茲接有粵西郵筒內言), 7월 13일에 흑기군이 승리했다는 기사에 대하여는 직접 종군하여 軍務에 참여하였다가 凱歌를 올리고 돌아온 사람에게서 입수한 것이어서 열거된 사실이 前報에 비해 매우 자세하므로 신속 보도하여 供覽에 제공하는 바이다.

위 4호 3)번 기사는『滬報』에서 粵西(월서, 광서지방)의 우편소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기사인데, 서두에 "越南 전쟁에 대한 기사는 모두 소문에 의한 것이요, 현장을 직접 수행하여 사실을 취재한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소식을 얻기가 곤란하며 가짜 뉴스가 횡행함을 불만스러운 어조로 표출한다. 아직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지 않은 시점에서 각 신문사들이 나중에 전황 취재를 위해 고용하는 採訪人, 訪事人[23]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이전의 사정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신문들은 전황과 관련한 풍문들 특히 프랑스의 승리를 전하는 소문 상당수가 프랑스의 농간에 의한 헛소문이며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한다.

3호 5) 海防(하이퐁)來信

프랑스 사람들은 패전을 숨겨 승리로 과장하여 월남 군사는 사상자가 많고 프랑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하므로, 이는 모두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字林滬報』)

5호 1) 海防郵報(하이퐁의 郵報)

서양 사람이 보내온 海防(하이퐁)의 소식에 의하면(海防西人來信云)『요사이 떠도는 소문에, 프랑스의 수습책을 맡은 總督 夏文이 이미 黑旗軍과 화친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터무니없는 말이다.』(『滬報』 9월 15일자)

---

23) 전쟁, 전황 소식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확인이 지연되고 번복되며 정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 신문사들은 소위 종군기자라 할 있는 취재인력인 採訪人, 訪事人들을 확보하여 현장에 파견하였고, 이를 통하여 전시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申報』의 경우 청불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인을 고용하여 전시 상황을 상세히 취재 보도하여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한보람, 앞의 논문, 140면 참조). 청불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1884년 이후(특히 4월, 8~9월)에『한성순보』에서 기존에 훨씬 많이 인용 또는 전재된『滬報』대신『申報』의 인용 빈도가 급증하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

5호 32) 綜論法越勝負情形(프랑스와 월남의 勝負 실황에 대한 종합 논평)

다만 프랑스에서 사람들을 위협 공갈하기 위하여 자기네의 패전 사실을 깊숙이 숨기고 도리어 승전한 양으로 각 처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전해진 것이라 한다. (상해 신문)

13호 23) 論各報述法越信息 (각 신문이 프랑스와 월남 소식 기록한 것을 논함)

프랑스와 월남의 전쟁에 대해 중국과 서양의 각 신문의 말이 서로 다르다. 本館(-『申報』 : 인용자)에서도 이미 들은대로 반드시 기록하는 예를 갖추어 신보에 기록하였다. 어제 본보에 서양인이 河內(하노이)에서 香港의 里加拉夫報에 보낸 서신을 실었는데 11월 28일에 발송한 것이니 이것이 최근 소식이다. 그러나 각 소식을 종합하여 보면 지역의 멀고 가까움이나 시간의 느리고 빠름을 논할 것 없이 믿을 만한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으며, 의심할 만한 것도 있고 의심하지 않아도 될게 있다. 또 믿을 만한가 하면 그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게 있고, 의심할 만하지마는 그런대로 믿을 만한 것도 있는가 하면, 의심과 믿음이 반반씩인데 이미 사람이 지적하여 낸 것도 있고, 의심과 믿음이 서로 섞여 있는데도 오히려 아무도 논단하는 자가 없는 수도 있다. (…) 대체로 월남에서 패한 소식은 숨기고 소문내지 않았으며, 이미 패한 후는 어쩔 수 없이 병사도 요청하고 군사비도 보충하였다. 이것만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申報』 1월 13일자)

프랑스가 헛된 소문의 근원이며 프랑스가 승리했다는 기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역 역시 성립한다. 즉 얼마든지 중국이 헛된 소문의 근원이며 중국(또는 흑기군)이 승리했다는 기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벌인 전쟁에 끌려들어가고 있는 자국(중국)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것 역시 중국 신문들로서는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나마 위 13호 23)번의 기사는 "프랑스와 월남의 전쟁에 대해 중국과 서양의 각 신문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프랑스가 병사와 군비를 (본국에) 요청한 사실로 미루어 프랑스의 패전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됨'을 지적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과 이 기사들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입장의 진술들 그리고 이 진술들에 작동하는 담론이 당시『한성순보』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실증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심화하고 교전이 치열해지면 질수록『한성순보』가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신문들은 논설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보도에서도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사실상『한성순보』의 편집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으며 오직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중국의 신문들이 편향성을 노출하면서 동아시아 제국주의 전쟁의 장에 끌려들어갔던 것처럼,『한성순보』역시 그 맥락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암시한다. 불가피하게『한성순보』에 프랑스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들이 시종일관 횡행하게 된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 여러 기사에서 프랑스인은 교활하고 잔인하며[24] 예측하기 어렵고[25],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아는 것이 밉살스럽고 가소로우며,[26] 만국공법도 우습게 아는[27] 무뢰한이자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표현된다.

---

24) 12호(1884. 1. 21(음)) 기사 14)募兵計惡(병사를 모집하는 계획이 나쁘다)에서는 프랑스가 태국 등지에서 모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며 "프랑스인의 꾀가 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것이냐"고 적고 있다.

25) 28호(1884. 6. 1(음))의 기사 26)'프랑스인은 예측하기 어렵다'와 33호(1884. 7. 21(음))의 기사 21)'프랑스인은 예측하기 어렵다'(출처는『滬報』)

26) 29호(1884. 6. 11(음))의 기사 2)'프랑스인은 무리하다'에서는 중국 선박이 프랑스 선박을 보고 기를 내려 예를 표하였으나 프랑스 선박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우쭐대는 심보에 한결 같이 자기들이 제일인척 하는 것이니 밉살스럽고도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적고 있는『申報』의 기사를 전하고 있다.

27) 13호의 11) '狂言可駭(놀라운 狂言)'는 프랑스가 월남과 대만 등지를 먼

프랑스는 영국 독일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불화하며, 아시아인들은 프랑스에 분노하여 치를 떤다[28]는 과격한 표현도 지면에 등장했던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프랑스가 유독 이러한 박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와 중국을 넘보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다른 열강들과도 불화를 빚게 된 1883~1884년이라는 특수한 시점 탓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과 이십여 년 전까지 1차, 2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공략하고 강제로 개항하게 했으며 조계지를 설치하고 홍콩을 할양받은, 과거의 적이었던 영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조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상해, 홍콩의 신문들 가운데 월등한 정보력과 정보망을 가진 다종의 영자신문들(『字林西報』 등 서자보)과 영국 수도를 근거로 하여 전 세계에 정보를 실어 나른 로이터통신이 이 시기 제국-식민지 담론의 형성에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성순보』의 기사들은 1883~4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산출된 세계 각지에 관한 정보들과 뉴스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넘어 동아시아를 넘보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등 열강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의 대응 양상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기사의 대부분이 중국

저 침략해 놓고 중국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온 나라가 미친 듯이 심하게 군다'고 하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萬國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申報』의 기사이다. ; 35호의 기사 23)'프랑스군이 대패하다'는 "프랑스인은 이리의 탐욕을 품고 제멋대로 재앙을 부리며 남의 영토를 누에처럼 갉아 먹을 심사로 각 국을 시끄럽게 어지럽히니 실로 만국공법에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라고 쓴 홍콩 『華字日報』 기사이다.

28) 4호의 1)은 "아시아주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해 모두 분노가 치밀어 치를 떠는 실정이다"라고 쓴 한 중국인의 기고문을 전하고 있다.(출처는 『滬報』)

특히 상해나 홍콩을 근거로 한 일간신문들에서 차용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와 담론의 경향성 또는 지향성은 때로는 중국 또는 영국의 입장을 필터로 걸러진 것들이 많다는 점도 확인된다. 그러나『한성순보』가 전달하고 있는 기사들은 그러한 한정적인 범위 이상의 앎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였다. 즉 서양 열강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갈등 및 치열한 외교전,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들 간의 복잡한 관계망과 같은 내용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담론화 하는 세계 여러 매체들의 전달 방식과 논조, 기사의 작성 방식과 기사의 요건과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 정보 매체들에 내재한 전 방위적인 특징들이『한성순보』의 기사 선택, 배치, 가공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성순보』를 발간한 조선 정부와 발간 주체들은 당대 아시아 및 식민지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세계열강들의 동태와 관련한 '앎'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이 담론의 장에 연루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단지 담론의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앎의 유통은 당대 조선 사회에서 청국과의 관계 설정, 속방과 종주권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 또는 담론의 형성을 추동시킨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대에 수집되어 가공되고 재편성된 다양한 외래의 정보들과 이들에 관한 앎 및 인식이 추후 어떠한 담론의 지평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그 상관관계의 규명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4. 결론

『한성순보』는 1883~84년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당시에 동

아시아 특히 중국의 개항장에서 형성된 가장 첨예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집적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이 매체의 위상은 독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은 특히 이 매체가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동향 그리고 제국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의 현장을 폭넓게 지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한성순보』편집자들은 근대적인 신문 또는 외신 기사에 익숙한 인물들이 전혀 아닌 전통 한학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한성순보』의 편집진들은 이 매체의 중점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각국근사'의 기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한문으로 발간된 중국의 일간신문들을 주요 뉴스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일매일 산출되는 상당한 양의 정보들을 선택, 배열, 편집하는 과정에서 곧 근대 신문이라는 것의 실체를 학습해 갔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 이런 저런 논조와 기사문의 형식을 독자에게도 그 자체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수집과 편집 배치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의 전달이 당대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쉽게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한성순보』가 나름의 선구적인 매체로서의 성격과 의의를 가진다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이런 저런 내용보다도 바로 이러한 시도 또는 실험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한성순보』의 근대성을 다시 재론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담긴 '개화사상', '과학지식'과 같은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아시아 근대 신문들에서 엿볼 수 있는 보도 형식과 보도 원칙, 기사 제공 방식과 피드백(후속 기사의 제공, 오보의 수정, 독자 의견의 반영)과 같은 외형과 체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초의 외신전문 매체로 개항기에 등장한『한성순보』는 시종일관 동아시아에서 입수할 수 있는 다종 다기한 외신 정보들과 논설

들을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재배치하여 제공하는 기능 자체에 충실하고자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한성순보』에 매호마다 수십여 건에 달하는 다수의 '각국근사'가 실릴 수 있었던 것은 1883~4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세계'와 관련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제공하려는 편집진들의 욕망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앎과 그것의 공유 및 확산에 대한 욕망이 은연중에 또는 의도치 않게 당대 세계의 변화무쌍한 역학관계와 세력 재편 과정을 꽤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순한문 매체로서 그 뉴스源이 1883~4년 청불전쟁 시기 중국 신문들이었다는 점으로 인해『한성순보』는 당시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의 특수한 현장과 담론에 의도치 않게 깊이 연루되게 되었다. 이렇게 집적되고 수용된 제국주의-식민지 관련 자료들과 영국, 프랑스 등 제국 열강들에 대한 특유의(편향된) 정보들이 이후 한국의 언론과 담론 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한성순보』에 이어 일본 신문 정보들이 더 많이 반영된『한성주보』의 경우와 비교하는 작업 역시 요구되는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성순보』,『滬報』,『申報』

2. 논문

김규환,「한성순보 해제」,『한성순보』(축쇄판 영인본), 1969.

김미지,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들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110, 2017, pp. 5-36.
김수자, 「근대 초 『한성순보』에 나타난 공학으로서의 과학과 '근대 지식'」,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45, 2012, pp. 141-168.
김연희,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지』 33권 1호, 2011, pp. 1-39.
문성규, 「漢城旬報의 開化思想에 관한 硏究 : 內容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0.
안춘근, 「잡지모체로서의 한성순보」,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언론연구소, 『언론연구논집』 2-1, 1984, pp. 13-32.
이경언 · 신현용,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 · 수학 관련 기사에 관한 고찰」,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 48(3), 2009.08, pp. 265-285.
이상재, 「한성순보 구성의 연원과 학술기사의 재구성 양상」, 서울대 석사논문, 2017.
장보운, 「1880년대 『漢城旬報』의 중국 인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48, 2016, pp. 191-229.
정대철, 「漢城旬報 周報의 開化方向에 관한 考察」,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5, 1984, pp. 93-126.
정진석, 「한성순보의 잡지 논쟁」, 한국출판학회, 『출판학연구』, 1997, pp. 429-431.
최정화, 「한성순보에 나타난 문명 개화론적 성격」,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최준, 「『漢城旬報』의 뉴우스源에 對하여」, 한국언론학회, 『신문학보』 2, 1969. 1, pp. 12-20.
한보람,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진단학회, 『진단학보』 100, 2005, pp. 109-164.
한실비, 「漢城旬報의 淸佛戰爭 보도에 나타난 개화지식인의 대외인식」, 단국대 석사논문, 2015.
「《北華捷報/字林西報》完成數字化制作 將開放查詢」, 『文匯報』, 2013. 11. 20.
陳曉平, 「『述報』是香港《中外新報》子報－破解一樁」, 『南方都市報』,2017. 1. 17. "歷史"版.

3. 단행본

박천홍, 『활자와 근대』, 너머북스, 2018

(**투고일**: 2018. 5. 24 **심사완료일**: 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1)

김미지
소속: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소: 서울시 관악로 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3동 331-2호
전자우편: sueder74@hanmail.net

[Abstract]

'Age of Imperialism' Captured in *Hansungsunbo* (1883~4) and Information war in East Asia

Kim Miji

Hansungsunbo was published from 1883 to 1884 by Chosun government before the brake of Kapshin coup. The year 1883~1884 can be specified by Indochinese war and French-Chinese war. Therefore the world captured by *Hansungsunbo* was especially that of imperialism and colonialism of that day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order of texts and editorial methods of *Hansungsunbo* and sheds light to the specific feature of the medium.

As is known that 70 percent of foreign news in *Hansungsunbo* had come from Chinese newspapers especially of Shanghai and Hong Kong. By the way, *Hansungsunbo* didn't oriented to unified tone or opinion, instead it aimed to accumulate as many foreign news as they could.

As a newspaper which is published every ten days, *Hansungsunbo* could accumulate huge amount of news from everyday newspapers abroad, and could rearrange informations and knowledge circulated in East Asia. In this process, *Hansungsunbo* also could learn the method and form of modern newspaper. It is unique characteristic and position of *Hansungsunbo* in East Asia and in the age of imperialism.

Key words: foreign news, international news, Indochina War, Sino-French War, Imperialism, colonialism, Chinese trade port newspapers, *Huibao*(滙報), *Shenbao*(申報)